



낙안읍성에서 조선시대 삶, 의복, 놀이문화 등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낙안읍성 전경.

# 순천 낙안읍성 600년전 조선시대 체험 호응

### 조상의 삶·의복·놀이문화 등 옛 그대로 재현

### 큰샘 빨래·사도 순찰·동문 포졸 수위도 인기

600년 전 조선시대 문화와 전통생활 그대로 시간이 멈춘 낙안읍성에서 조상의 삶, 의복, 놀이문화 등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생활재현 프로그램은 낙안읍성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며 매일 운영된다. 동문 입구에서 삼지창을 든 포졸, 검정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고 큰 샘

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상투를 쓰고 버 가마를 지고 가는 촌로, 사또가 낙안읍성 내를 민정순찰하는 등 조선시대의 다양한 모습이 재현된다. 특히 관람객으로부터 인기 많은 짚물 공예를 비롯한 9개 일일상설 체험장과 주말공연인 수문장교대의식재현, 군악, 가야금병창 등은 낙안읍성을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또 부모와 함께하는 홀테에서 버

탈곡체험, 짚구, 맷돌, 복식체험, 대형 옷놀이, 짚신체험, 줄연날리기, 낙안 초등 어린이 농악단 공연, 죄인이승재현, 딱지치기 등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도 신선했다. 서울에서 온 정수아(여·41)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 낙안읍성을 찾았다”며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살면서 옛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전통생활재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옛 선조들의 지혜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통문화 계승과 재현을 통해 낙안읍성만의 특징과 정체성을 강화, 오는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고려청자 상감기법 교육현장서 활용

### 여성 도예가 김수영씨 '체험키트' 개발 특허 등록

한 여성 도예가가 청자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한 '고려청자 상감기법 체험키트'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고려청자 상감기법 체험키트'를 개발한 화제의 주인공은 강진군 칠량면에서 자유 도예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도예가 김수영(41)씨. 김 도예가는 청자슬러미, 청자 LED조명등, 청자 지압타일 등 신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해 활용도가 매우 높은 다양한 청자 상품을 개발해 왔다. 지금까지 등록한 특허(디자인 특허 포함)만도 10여건. '고려청자 상감기법 체험

키트'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사회과목 및 중·고등학교의 국사교과 내용과 연계해 그 활용 범위를 다양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려청자 상감기법 체험용 키트'는 반건조된 도관, 조각도, 상감용 흙(백상감용, 흑상감용), 굽게 등을 가지고 음악조각, 상감, 굽어내기 과정을 통해 상감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 김수영 도예가는 “학생들이 우리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고려청자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 국제세미나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최순애)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해 31일 오후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전남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자원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전남여성플라자 제공>

## 독거노인 독감예방 집중 농어촌공사 담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조규정)는 지난 31일 “지난 28일 사회공헌 경영 나눔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병원과 협력해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지사는 또 직접 지사를 찾은 농민에게도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담양읍 백동리의 이성자(여·67)씨, 시각장애인 박문자(여·71)씨 등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입었다. 조규정 지사장은 “이번 독감예방 집중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통해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담양지사 전직원들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 장성 유림회관 준공 한자·예절교실 등 갖춰

리에 부지 987㎡, 연면적 156㎡ 규모의 전통한옥 건물로 건립됐다. 장성향교와 장성유도회가 위탁운영하고, 전통예절교실과 한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쓰인다. 한편 군은 지난 7월 옛 월평초등학교 황룡분교를 리모델링해 숙박시설과 도서관 등을 갖춘 인성교육 캠프 새싹꿈터를 조성하기도 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남도해양관광 열차, 하루 4차례 광양역 정차

광양시는 31일 “오늘(1일)부터 광양역에 남도 해양관광 열차(S-Train)가 하루 4차례 정차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부터 부산역~여수엑스포역 간, 광주역~마산역 간 1

일 1회 왕복 운행하는 남도 해양관광 열차 정차역에서 당초 광양역은 제외됐으나 전남 동부권의 관광객 확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양역을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

광양역 정차 시간은 오전 광주역발 11시23분, 부산역발 12시21분, 오후 여수엑스포역발 18시44분, 마산역발 19시34분이며, 운행 요금은 부산역에서 광양역(200.3km)까지 주중 2만 1900원, 주말 2만2800원, 광주역에서 광양역(143.2km)까지 주중 1만6500원, 주말 1만7100원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

## 11월 남도 전통술 장흥 '안양동동주'

전남도는 11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장흥 안양주조합의 '안양동동주(사진)'를 선정했다. 동동주는 가을걷이가 끝나면 햅쌀로 술을 빚어 문종의 화목을 다지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마셨다고 전해지는 술이며, 11월은 햅쌀로 빚은 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1년 중 가장 맛있는 시기로 손꼽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양동동주는 광산김씨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을주를 상품화한 천년 종가주다. 채창현 안양주조합 대표는 “좋은 재료로 술을 빚기 위해 친 환경 쌀과 참쌀을 직접 재배해 동동주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뽕뽕)의 이호영 대표